2027
수능 국어

•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수능완성 전 작품 수록

# 더 아련도 감 - E 수완정보

## 운문 • 산문

✓ 이투스 1타 강사 박광일 강의와 연계하여 2027학년도 수능 문학 완벽 대비
✓ 2027학년도 수완 전 작품 및 기출(수능 · 모평 · 학평) 전 문항 수록
✓ 심도 있는 분석과 친절한 해설로 자기 주도 학습 가능

박광일 지음

혼자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수험생을 위한 **강의**

# 박광일의
# 훈련도감-E 수완정복
## [운문·산문]

EBS 연계 학습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강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EBS 연계 문학 강의 [바로 보기]

**EBS 연계 문학 작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에게**

## 훈련도감-E 수완정복이 답인 이유!

### ① 훈련도감-E 수특·수완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 완성

EBS 연계 교재의 출제 요소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핵심 출제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작품 해설과,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랜을 통해 이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②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 분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문학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최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석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박광일 선생님의
## 훈련도감-E 수완정복과 함께하면 좋은 점

**첫째**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학습 가능**

EBS 연계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박광일 선생님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문학 전 작품 강의를 제공합니다.

**둘째**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심도 있게, 출제 가능성이 낮은 작품은 핵심만 짚어
강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강의를 따라오면 어느새 EBS 연계 학습 완료**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완정복 강의를 통해
작품별 학습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EBS 학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 핵심 포인트를 도식화하여 학습 효율성 극대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전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출제 요소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

###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 수록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원리를 익히고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이투스(https://www.etoos.com)
박광일 선생님의 Q&A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Structure

# 구성과 특징

##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E**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적절한 선지를 정리한 것으로, 연계 교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α** EBS 연계 교재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꼭 알아 두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근거가 되는 구절 옆에 수록하였습니다.

## EBS 〈보기〉의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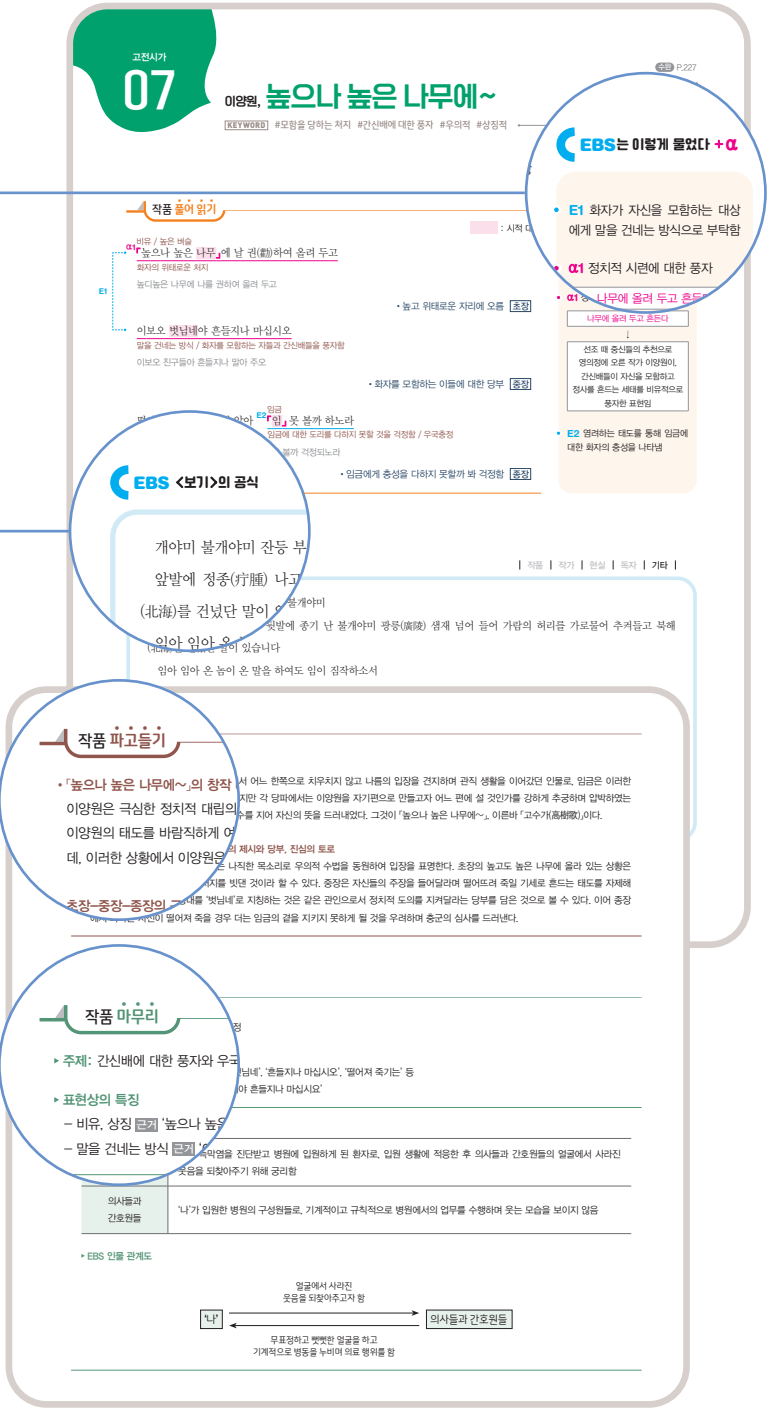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BS 연계 교재 〈보기〉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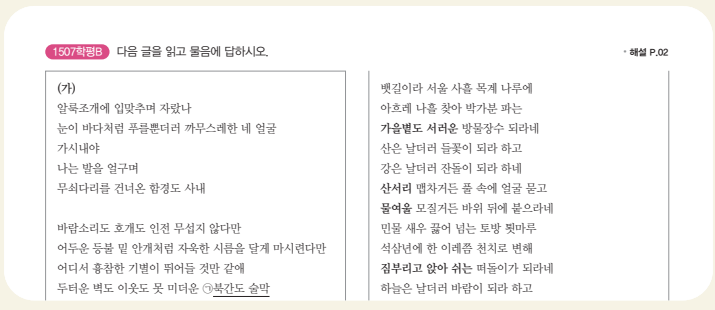
## 작품 파고들기

학술지와 논문을 기반으로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작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난도 〈보기〉 문제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작품 마무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품의 주제, 표현상(서술상)의 특징, 산문에서는 주요 인물과 인물 관계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7학평B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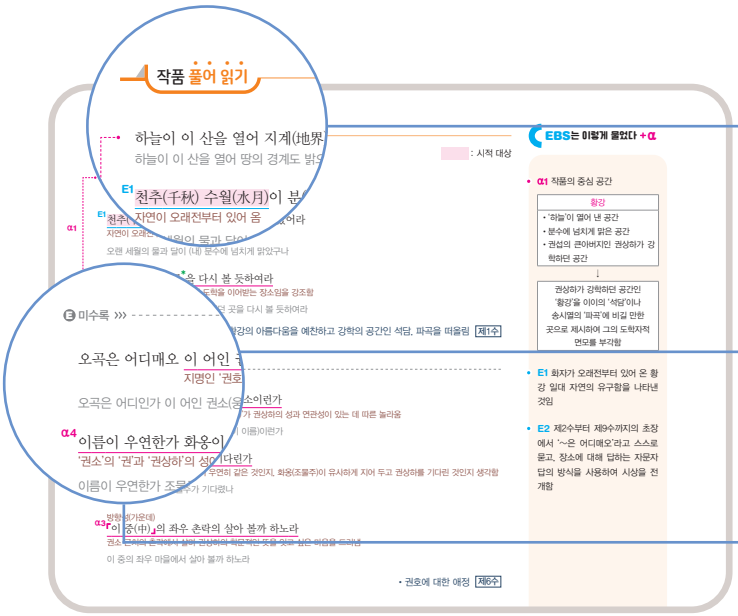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 기출 문제로 확인하기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작품의 바로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운문




### 작품 풀어 읽기

작품 본문을 수록하고 실전에 필요한 작품의 특징과 해석의 방향을 안내하여 수능형 사고에 맞는 작품 해석 기준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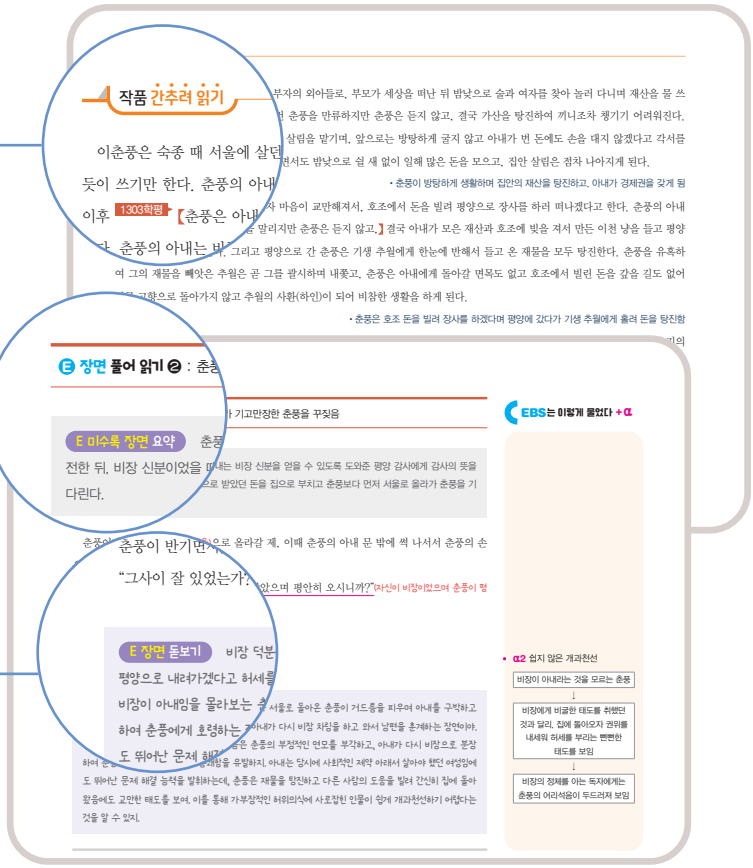
### E 미수록(고전시가)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연계 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합니다.

### 현대어 풀이(고전시가)

작품 본문의 각 행마다 현대어 풀이를 달아 고전 시가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산문




### 산문 작품 간추려 읽기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간추려 수록했습니다. 작품의 흐름과 주요 인물, 인물 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BS 연계 교재 수록 및 기출 출제 부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 장면 풀어 읽기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장면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고려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이나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E 장면 돋보기

EBS 연계 교재에 실린 장면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문제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정 · 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ontents

# 목차

## 현대시


01 서정주, **자화상** ····· P.010
02 신경림, **목계 장터** ····· P.012
03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P.019
04 안도현, **연탄 한 장** ····· P.025
05 정한모, **나비의 여행** ····· P.027
06 박남수, **새 1** ····· P.029
07 김수영, **눈** ····· P.033
08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P.042
09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P.045
10 황동규, **기항지 1** ····· P.050
11 김소월, **삼수갑산–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 P.052
12 박목월, **이별가** ····· P.058


## 고전시가


01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 P.066
02 정극인, **상춘곡** ····· P.075
03 작자 미상, **상저가** ····· P.094
04 작자 미상, **베틀 노래** ····· P.096
05 허난설헌, **빈녀음** ····· P.098
06 권섭, **황강구곡가** ····· P.100
07 이양원, **높으나 높은 나무에~** ····· P.105
08 이항복, **철령 높은 고개~** ····· P.107
09 이항복, **시절도 저러하니~** ····· P.111
10 구인후, **어전에 실언하고~** ····· P.112
11 조위, **만분가** ····· P.113


## 현대산문


01 이청준, **줄** ····· P.136
02 오정희, **동경** ····· P.143
03 현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 ····· P.153
04 김성한, **무명로** ····· P.161
05 염상섭, **양과자갑** ····· P.168
06 최인호, **견습 환자** ····· P.176
07 황석영 원작, 김석만 · 오인두 각색, **한씨 연대기** ····· P.186
08 이강백, **물고기 남자** ····· P.196
09 윤태호 원작, 정윤정 각색, **미생** ····· P.204
10 윤오영, **까치** ····· P.214


## 고전산문


01 작자 미상, **장풍운전** ····· P.222
02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P.238
03 작자 미상, **운영전** ····· P.254
04 작자 미상, **두껍전** ····· P.269
05 권칙, **강로전** ····· P.277
06 작자 미상, **이춘풍전** ····· P.286
07 이수광, **침류대기** ····· P.299
08 김상헌, **호종상가사면상소** ····· P.306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2주 완성 추천 PLAN **훈련도감-E 수완정복**

| DAY | 날짜 | 작품 | 학습 CHECK |
|---|---|---|---|
| 1 | / | 현대시 01 서정주, 「자화상」 현대시 02 신경림, 「목계 장터」<br>현대시 03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현대시 04 안도현, 「연탄 한 장」 | ☐ |
| 2 | / | 현대시 05 정한모, 「나비의 여행」 현대시 06 박남수, 「새 1」<br>현대시 07 김수영, 「눈」 현대시 08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 ☐ |
| 3 | / | 현대시 09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현대시 10 황동규, 「기항지 1」<br>현대시 11 김소월, 「삼수갑산–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br>현대시 12 박목월, 「이별가」 | ☐ |
| 4 | / | 고전시가 01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고전시가 02 정극인, 「상춘곡」 | ☐ |
| 5 | / | 고전시가 03 작자 미상, 「상저가」 고전시가 04 작자 미상, 「베틀 노래」<br>고전시가 05 허난설헌, 「빈녀음」 고전시가 06 권섭, 「황강구곡가」 | ☐ |
| 6 | / | 고전시가 07 이양원, 「높으나 높은 나무에~」<br>고전시가 08 이항복, 「철령 높은 고개~」<br>고전시가 09 이항복, 「시절도 저러하니~」<br>고전시가 10 구인후, 「어전에 실언하고~」 | ☐ |
| 7 | / | 고전시가 11 조위, 「만분가」 현대산문 01 이청준, 「줄」 | ☐ |
| 8 | / | 현대산문 02 오정희, 「동경」 현대산문 03 현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br>현대산문 04 김성한, 「무명로」 | ☐ |
| 9 | / | 현대산문 05 염상섭, 「양과자갑」 현대산문 06 최인호, 「견습 환자」<br>현대산문 07 황석영 원작, 김석만 · 오인두 각색, 「한씨 연대기」 | ☐ |
| 10 | / | 현대산문 08 이강백, 「물고기 남자」<br>현대산문 09 윤태호 원작, 정윤정 각색, 「미생」 현대산문 10 윤오영, 「까치」 | ☐ |
| 11 | / | 고전산문 01 작자 미상, 「장풍운전」 고전산문 02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 |
| 12 | / | 고전산문 03 작자 미상, 「운영전」 고전산문 04 작자 미상, 「두껍전」 | ☐ |
| 13 | / | 고전산문 05 권칙, 「강로전」 고전산문 06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
| 14 | / | 고전산문 07 이수광, 「침류대기」 고전산문 08 김상헌, 「호종상가사면상소」 | ☐ |

2027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훈 련 도 감 – E 수 완 정 복

# 현대시

현대시

# 01 서정주, 자화상

수완 P.045

KEYWORD #지난 삶에 대한 회고 #끈질긴 생명력 #독백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 작품 풀어 읽기

: 시적 대상

E1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독백적 어조 / 화자의 태생적 한계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직유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가난 때문에 소박한 소망도 이루기 어려운 상황 / 열악한 생활 환경

E2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시각적 이미지 / 고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 많은 머리털과
외형의 유사성을 통해 외할아버지와 화자의 운명적 동질성을 드러냄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시련과 방황

α1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중의적 의미 / 화자가 인지한 부끄러움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타인의 부정적 인식 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E4 천치를 읽고 가나
타인의 부정적 인식 ②

E3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련다.
자신의 삶과 운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

• 불우한 삶의 내력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운명을 수용함 1연

찬란히 트여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α2 시의 이슬에는
상징 / 삶의 고통이 시 창작의 원천이 됨

과거의 고통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E5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을 늘어뜨린
화자가 경험해 온 모든 삶의 순간들

E6 병든 수캐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직유 /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의 의지를 이어 옴

• 삶의 고통을 문학적으로 승화하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 옴 2연

## EBS는 이렇게 물었다 +α

- **E1** 화자의 태생이 천한 일을 하던 종의 자식임을 밝히며, 화자가 굴욕·모멸·차별을 견뎌 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운명을 지녔음을 드러냄
- **E2** 가난으로 인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삶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 **α1** 부끄러움의 중의적 의미

| |
|---|
|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
| ② 부끄러운 세상 |

- **E3**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힘든 상황에 집중하게 함
- **E4** '천치'는 '어떤 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화자의 삶에 대한 평가를 드러냄
- **α2** '시의 이슬'의 상징적 의미

| 시의 이슬 |
|---|
| 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창조 행위 |
| ②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애쓴 결과물 |

- **E5** 화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상황들을 '볕'과 '그늘'로 종합적으로 나타냄
- **E6** 힘겨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화자의 회고를 드러냄

*갑오년: 1894년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해이자 갑오개혁이 시행된 해.

# 고전시가

고전시가

# 01 연안 이씨, 부여노정기

수완 P.060

KEYWORD #아들의 부임 행차에 동행함 #입신양명한 아들을 둔 자부심 #국문 기행 가사 #규방 가사

## 작품 풀어 읽기

: 시적 대상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릇 알고
화자가 자신을 선계에서 적강한 인물로 여김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하여 잘못 알고

인간에 적강하여 평생에 병이 많아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평생에 병이 많아

북창하에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도다
규방(여성 화자) 여성으로서 각종 사회적 제약을 겪음
북쪽 창 아래 누웠으니 뜻대로 하기 어렵도다

α1

복희씨를 꿈꾸던가 E1아침에 까치 소리 과연히도 새롭도다
영탄 / 청각적 이미지 / 시간적 배경(아침) / 상서로운 징조
태평성대를 꿈꾸었던가 오늘 아침 까치 소리 참으로 새롭도다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 늘어지게 나는구나
화자의 아들이 부여 현감에 임명됨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 늘어지게 나는구나

갑인년 방소린 듯 을묘년 감시런 듯
대구 / 아들의 과거 급제와 승진 과정을 생각함
갑인년 급제 소리인 듯 을묘년 감관 시험인 듯

홍문관 직중 아이 편지를 올리거늘
현재 아들이 홍문관 직중에 있음
홍문관 관직에 있는 아이가 소식을 올리거늘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봉함을 떼어 보니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봉한 내용 떼어 보니

충청도 부여 현감 임금이 결정하니
충청도 부여 현감으로 임금의 지명을 받으니

α2

E2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감축*하다
영탄 / 아들을 부여 현감에 임명한 임금에 대한 감사
아아 성은이야 갈수록 감사하다

작년에 안악 영감 가문에 단비더니
비유(기쁜 소식)
작년에 안악 영감이 된 것이 가문에 단비 같은 소식이더니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 이상의 것
E3오늘날 이 희보는 그 더욱 망외로다
아들이 부여 현감으로 임명된 소식
오늘날 이 기쁜 소식은 그 더욱 뜻밖이구나

## EBS는 이렇게 물었다 +α

**α1** 화자의 특성 ①

| |
|---|
| ① 자신이 천상계에서 적강했다고 여김(자신의 능력을 드러냄)<br>② 규방의 여성으로서 사회적 제약을 겪음 |

**E1**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아들의 임명 사실을 듣는 반가운 상황을 제시함

| |
|---|
| 청각적 이미지 |
| 까치 소리 |
|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 |

**α2** 작품의 시작과 결말이 모두 아들이 임금의 교지를 받는 것으로 구성됨

| | |
|---|---|
| 처음 | 아들이 부여 현감으로 임명되어 부여로 떠나게 됨 |
| 결말 | 아들이 홍문관 수찬의 벼슬을 받고 서울로 가게 됨 |

**E2** 감탄사 '어와'를 활용해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

**E3** 부여 관아에 일하는 사람들이 화자의 아들을 하루에 세 번씩 알현하며 극진히 대우하는 상황의 원인이 됨

*황정경: 도가의 경전. 신선이 이 경전의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귀양 온다고 함.

*감축: 경사스러운 일을 함께 감사하고 축하함.

# 현대산문

현대산문

# 01 이청준, 줄

수완 P.052

KEYWORD #장인 정신과 세속적 욕망의 충돌 #인물의 태도 변화 #액자식 구성

## 작품 간추려 읽기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나(남 기자)'는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다가 어느 날 문화부장으로부터 자신의 본적인 전남 C읍에 전해 내려오는 승천한 줄광대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해 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던 '나'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출장길에 오른다. C읍에 도착한 '나'는 여관방에서 낮잠을 자고 밤거리를 헤매다 한 여자를 만나 밤을 보낸다. 다음 날, '나'는 읍내 다릿목에서 '승천장의사'라는 간판을 단 곳으로 들어선다. 잿빛 얼굴에 붉은 안경테를 쓴 장의사 주인은 외지인인 '나'에게 C읍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줄광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 취재를 하기 위해 C읍에 내려간 '나'가 그곳의 장의사 주인으로부터 승천한 줄광대 이야기를 들음

과거인 1949년, C읍에 들어온 서커스단에 유독 높게 줄을 걸고 꼿꼿한 자세로 줄을 타던 젊은 줄광대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 줄광대가 줄 위에서 발 재주를 조금씩 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밤 줄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였다. 기이하게도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 '승천'을 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승천장의사'는 그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장의사 주인은 당시 서커스단에서 트럼펫을 불던 사내가 여전히 C읍 공원 중턱에 살고 있다며 약도를 건네준다. 그리고 '나'는 심한 폐병으로 각혈하며 죽어가는 트럼펫의 사내를 찾아가 줄광대 이야기의 전말을 듣게 된다.

• 장의사 주인이 '나'에게 줄광대와 같은 서커스단에 있었던 트럼펫의 사내의 집 약도를 건네줌

죽은 줄광대의 이름은 '허운'이었으며, 그에게는 평생 줄광대로 살아온 아버지 '허 노인'이 있었다. 허 노인은 과거 아내와 서커스단장의 부정을 의심해 아내를 목 졸라 죽였던 인물로, 그 일이 있고도 하룻밤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 서커스단에서 줄을 탔다. 허 노인은 아들 운이 열 살이 되던 해에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몸을 꼿꼿하게 하고 각목 위를 왕래하게 했으며, 이후 땅 위에서 줄을 타게 했다.

• 트럼펫의 사내가 '나'에게 서커스단 줄광대인 허 노인과 허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줌

운이 16살이 되어 언뜻 보기에는 허 노인과 다름없이 줄을 탈 수 있게 된 어느 날, 운은 허 노인에게 관중들 앞에서 줄을 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허 노인은 운에게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냐고 질문했고, 운이 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단호하게 운의 청을 거절했다. 이후 18살이 된 운은 허 노인에게 같은 청을 올렸다. 이에 허 노인이 운에게 줄을 탈 때 줄이 넓어 보이냐는 질문을 했고, 운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으나, 허 노인은 아직 운에게 객기가 있다고 말하며 운의 청을 거절했다.

• 운의 수련이 부족하다고 여긴 허 노인이 관중들에게 재주를 보이고 싶다는 운의 청을 두 번 거절함

사실 운은 자신이 허 노인만큼 줄을 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허 노인은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흘러가듯 줄을 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줄에서 내려오면 허 노인은 언제나 땀을 흠뻑 흘리고 있었다. 서커스 단장은 그런 허 노인의 줄타기가 관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여겨 허 노인을 매번 나무랐으나 허 노인은 여전히 전처럼 줄을 탔다. 운은 허 노인의 줄 타는 방식을 좋아했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렇게 줄을 타기를 바랐다. 운이 허 노인에게 두 번째 청을 올리고 1년이 지난 후, 허 노인은 줄을 타다가 한 번 발을 헛디뎠다.

• 운이 주변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려는 허 노인의 태도를 배우고자 함

# 고전산문

고전산문

# 01 작자 미상, 장풍운전

수완 P.068 기출 2210학평 / 1503학평A / 1104학평

KEYWORD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족과 재회한 이야기 #영웅 소설 #가정 소설

## 작품 간추려 읽기

중국 송나라 때, 금릉 땅의 전직 이부 시랑 장희와 아내 양 씨가 늦도록 자식이 없음을 슬퍼한다. 그러다 양 씨가 옥황상제가 자식을 점지해 주는 신비한 태몽을 꾸고 아들 풍운을 낳는다. 풍운이 일곱 살이 되자, 장 시랑은 풍운이 나이에 비해 매우 뛰어나 단명함을 염려하여 절강 땅의 명망 높은 도사에게 가서 점을 본다. 도사는 풍운이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져 타향을 떠돌다가 이십 세에 이르러 과거에 급제하고 부모와 재회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장 시랑은 양 씨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의 사주를 기록하여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풍운의 옷깃 속에 감춰 둔다.

• 장 시랑이 아들 풍운과의 이별을 염려하여 옷깃 속에 비단 주머니를 감추어 둠

이듬해, 가달의 침입으로 천자의 명을 받아 전장으로 가게 되자 장 시랑은 차고 있던 장도를 풍운의 옷고름에 채워 주고, 양 씨도 도적을 만날 것을 걱정하여 순금 비녀를 끊어 장도와 함께 풍운에게 채우고 세월을 보낸다. 금릉에 도적들이 침입하자 양 씨는 풍운을 데리고 금계산으로 피란하지만 결국 도적에게 풍운을 빼앗기고 만다. 전란 중에 집마저 불타 의지할 곳이 없어진 양 씨는 여남의 친척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우연히 만난 여승 청정을 따라 단원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

• 장 시랑이 가달의 난에 출전한 사이에 양 씨와 풍운이 도적을 만나 헤어지게 됨

한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 시랑은 부남 태수의 직위를 하사받고 부남으로 가다가 고향인 금릉에 이르는데, 고향 집이 터만 남은 것을 보고 가족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부남에 부임하게 된다. 슬퍼하던 장 시랑은 중서령 진위의 딸과 재혼한다.

• 양 씨와 풍운이 죽었다고 생각한 장 시랑이 고향을 떠나 부남 태수로 부임하고 그곳에서 재혼함

도적에게 버림받고 방황하던 풍운은, 풍운의 비범함을 알아본 전직 통판 이운경에 의해 구조된다. 이운경은 전처 최 씨에게서 딸 경패와 아들 경운을 얻고 호 씨를 재취로 맞아들여 자녀를 얻었으나, 사나운 호 씨가 경패 남매를 시기하고 구박하여 매우 한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비범한 풍운을 얻고 기뻐하며 풍운과 경패를 배필로 맺어 주려 한다. 호 씨는 비범한 풍운이 경패의 짝이 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냉대당할까 걱정하여 풍운을 모해할 기회를 엿보다 죽에 독약을 넣어 경패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한다. 이운경은 호 씨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경패와 풍운을 혼인시킨다.

• 도적에게 버림받은 풍운이 이운경에게 구조되고 운경의 딸 경패와 혼인함

풍운이 경패와 혼인한 후 이운경은 호 씨의 박대가 심하면 펼쳐 보라며 유서를 남긴 후 죽는다. 호 씨는 전처 자식인 경패 남매를 더욱 심하게 학대하고, 풍운은 장인 이운경이 남긴 유서에 따라 경패를 집에 두고 처남 경운만을 데리고 집을 나선다. 풍운이 떠난 뒤 경패는 호 씨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라고 강권하자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꿈에 나타난 부친의 말대로 단원사에 갔다가 풍운의 모친 양 씨와 만난다.

• 이운경이 사망한 후 풍운은 경운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경패도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풍운의 모친을 만남

경운을 연경사에 맡겨두고 광대 무리와 함께 다니던 풍운은 전 이부상서 왕공렬을 만나고 왕공렬은 풍운을 심부름꾼으로 삼는다. 이후 풍운은 왕공렬의 심부름으로 경성에 가서 원천에 집에 있으면서 학문을 수양하여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된다. 그 후 원천의 딸 황해, 왕공렬의 딸 부용과 차례로 혼인한다.

• 풍운이 왕공렬, 원천 등과 만나 높은 벼슬에 오르고 그들의 딸과 혼인함

# 한국도감 - E 수원정보

운문 • 산문

현대시

# 02 신경림 「목계 장터」

• 문제 P.014

**정답** 1. ③ 2. ④ 3. ⑤ 4. ③ 5. ① 6. ② 7. ③ 8. ④

[1~3] 1507학평B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신경림, 「목계장터」

## 1. ③

**| 정답 풀이 |**

(가)에서는 '울 듯 울 듯', '~도 없이 사라질 게다'의 동일한 시구 반복을 통해, (나)에서는 '~이 되라 하고', '~이 되라 하네'의 동일한 시구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을 통해 어떤 진리나 사실을 말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시상의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가)는 '가시내야'를 통해 전라도 가시내가 구체적 청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나)에서는 구체적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남실남실', '차알삭', '휘 휘', '우줄우줄'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2. ④

**| 정답 풀이 |**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짓는 웃음이므로, 함경도 사내에게 연민을 느껴 짓는 웃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연민의 정서는 가시내가 아닌 함경도 사내가 느끼는 심정이다.

**| 오답 풀이 |**

① ㉠(북간도 술막)에서 함경도 사내인 '나'가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 같은, '이웃도 못 미더운' 공간이므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함경도 사내는 타향에서 고통스럽게 살아 '그늘진 숲속' 같은 음울한 마음을 갖게 된 전라도 가시내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난한 이야기)은 함경도 사내가 듣고자 하는 전라도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으로 인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려짐은 눈물로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면서 느껴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 주었을 때, 전라도 가시내가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너의 나라)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으므로, ㉤은 고향을 떠나 슬픈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3. ⑤

**| 정답 풀이 |**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화자가 '유랑하는 삶'에 '대응하는 모습'은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에서 벌판에 나서며 현실에 맞서려는 비장한 의지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은 잠시나마 방랑의 운명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정서를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가)의 '봄을 불러줄게'는 함경도 사내가 자신과 같이 유랑하는 처지인 가시내에게 '너의 나라', 즉 고향을 환기시키며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가)에는 화자가 '유랑하는 삶'에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에서 화자가 '얼음길'이 '눈포래 휘감아치는' 곳일지라도 '우줄우줄 나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을볕도 서러운'이라는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통해 유랑민의 삶의 비애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유랑민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의 '눈포래', '얼음길'과 (나)의 '산서리', '물여울'은 삶의 고난을 형상화한 소재이므로 유랑의 삶 속에서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4~8] 0406모평

신경림, 「목계 장터」 / 황동규, 「기항지 Ⅰ」 /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 4. ③

| 정답 풀이 |

(나)의 '바다'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이상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으며, '바다'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희의 공간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나루'는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이자, 화자가 장이 서는 날마다 찾아왔다가 떠남을 반복하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떠남과 돌아옴,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등 애환이 깃들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항구'는 배가 정박하는 공간이므로, (나)의 '항구'는 여행 과정에서의 종착지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다.

④ (다)의 화자는 '봄이 오던 아침'에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렸으므로, (다)의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이 담긴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화자는 서울에서 동경으로 간 뒤 '동경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옛 거리에 남은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서성거'리는 '정거장 가차운 언덕'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5. ①

| 정답 풀이 |

'산은 날더러 나무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풀이 되라 하네'에서 '나무'와 '풀'은 [A]의 '들꽃'이나 '잔돌'과 같이 땅에 정착하여 자리 잡은 존재들을 상징하고, '눈보라 몰아치면 숲 속에 몸 낮추고 / 바람 거세거든 강가에 누우라네'에서 '눈보라'와 거센 '바람'은 [A]의 '산서리'나 모진 '물여울'처럼 존재에 가해지는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기〉의 조건에 맞게 (가)의 [A]를 바꾸어 창의적으로 잘 표현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 6. ②

| 정답 풀이 |

(나)에서 화자는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데'로 내려가 '어두운 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와 '하늘의 새들'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관조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기항지 Ⅱ」의 화자 역시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어조가 열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기항지 Ⅱ」는 (나)와 동일하게 '기항지'라는 제목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어두운 하늘'이 「기항지 Ⅱ」에서는 '다색의 새벽 하늘'로 바뀌었으므로, 시간적 배경이 밤에서 새벽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기항지 Ⅱ」의 '밧줄을 푸는 늙은 뱃군의 실루에트', '뱃고동이 운다' 등을 통해 정박했던 배가 출항하고 있는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나)에서 정착과 방랑 사이에서 고뇌하고만 있던 화자의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한지의 바람 / 바다 앞의 집을 흔들고', '어두운 용골들이 / 모두 고개를 들고 / 항구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등에 나타나는 불안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기항지 Ⅱ」에서는 '밧줄을 푸는 늙은 뱃군의 실루에트',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등과 같이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어 화자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7. ③

| 정답 풀이 |

(다)의 화자는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렸으므로 순교자적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자는 '동경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그리워하며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리려 한다. 이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려는 실존적 결단의 태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다)의 시인을 자기 희생의 시인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다)의 화자는 '봄이 오던 아침'에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나를 멀리 실어다 주'는 '기차'를 기다렸다. 이때 (다)의 '봄', '아침' 등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의 시인은 이상을 추구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다)의 화자는 '동경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옛 거리에 남은 나'를 그리워하며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기차'를 본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의 시인은 고뇌와 방황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다)의 화자는 '부끄러울 것도 없이 /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춰' 날고 있는 '비둘기 한 떼'를 보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시인은 자아 성찰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산문

# 06 최인호 「견습 환자」

• 문제 P.184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③

[1~4] 2204학평

최인호, 「견습 환자」

## 1. ①

**| 정답 풀이 |**

[A]에서는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는 간호원들과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는 의사들의 행동을 묘사하여 병원의 분주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B]에서는 현재형 진술이 아닌 '썼다', '되었다' 등의 과거형 진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나'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와 [B] 모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④ [A]에서는 병원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나'가 관찰한 바를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간이 역전되지 않는다. 또한 [A]와 [B] 모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B]는 '나'가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는 '나'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2. ④

**| 정답 풀이 |**

우두머리 의사는 '오전 아홉 시'경에, 오늘 퇴원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퇴원이시죠?'라고 묻고 '몸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여 '나'의 상태를 확인했을 뿐, 퇴원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언젠가' '외국 잡지'에 실린 '화장품 광고'에서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만한 '매혹적인 웃음'을 짓는 남자를 목격한다.

② '나'는 '그날 밤' 모든 '병동이 잠'든 후 '거의 온밤을 새'울 정도의 시간을 들여 병동을 오가며 '1 병동에 있는 문패와 2 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조리 바꿔' 두는 작업에 몰두하였다고 했다.

③ '나'는 두 병동의 문패를 모조리 바꿔 둔 뒤 다음날 '무언가 달라진 낌새'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섭섭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언제나 그러하듯 간호원들은 잰걸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했다.

⑤ 젊은 인턴은 '어젯밤' 병원에 '굉장히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다며 '나'에게 '뭐 잃으신 물건은 없는지' 물었다.

## 3. ③

**| 정답 풀이 |**

'나'는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추하던 실험용 쥐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때 쥐가 ㉠(안이한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눈앞에 전개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한 견고한 미로 속에 쥐 대신 그 젊은 인턴을 삽입해 보자고 생각'하며, '1 병동에 있는 문패와 2 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조리 바'꿈으로써 병원을 미로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젊은 인턴이 ㉡(새로운 방황의 길)으로 떠나 주기를 기원한다. 여기에는 미로에 빠짐으로써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쥐처럼, 젊은 인턴 또한 ㉡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쥐에게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이 아니라 '새로운 미로'이다.

② 윗글에 젊은 인턴이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다짐하거나, ㉡의 가치를 깨닫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에는 쥐가 선호할 법한 목표인 '먹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은 '나'가 젊은 인턴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한 것일 뿐, 이것이 젊은 인턴이 선호하는 목표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⑤ 쥐는 '반복, 반복으로 터득한' ㉠을 통해 익숙하게 먹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쥐에게 있어 학습되지 않은 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젊은 인턴이 낯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전산문

# 02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문제 P.248

**정답**

| | | | | |
|---|---|---|---|---|
| 1. ① | 2. ④ | 3. ① | 4. ② | 5. ⑤ |
| 6. ② | 7. ③ | 8. ① | 9. ③ | 10. ① |
| 11. ④ | 12. ② | 13. ① | | |

[1~4] 1609모평B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1. ①

**| 정답 풀이 |**

진 소저는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물며 혼인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한 뒤 부모님과 이별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방금 부모님을 작별했으므로~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합니다.'라는 진 소저의 말을 전해 듣고도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저와의 혼인을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으므로 적절하다.

③ 조문화는 진 소저를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아들과 진 소저의 결혼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운섬은 진 소저와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리고 남장을 한 후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⑤ 마을 사람은 진 소저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 2. ④

**| 정답 풀이 |**

[A]에서 조문화는 자신에게 진형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진형수의 딸인 진 소저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라는 의중을 전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부친을 살리기 위해 조문화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진 소저에게 "황금을 걸어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에서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진 소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에서 조문화가 권력을 이용해 오 낭중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고, [B]에서 오 부인이 진 소저에게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조문화는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지난 일을 들고 있으나, 이는 청자인 오 낭중이 아닌 진형수에 대한 원한을 드러낸다. [B]에서 오 부인은 진 소저가 이전에 쓴 '시'를 떠올려 진 소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낼 뿐,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조문화는 청자인 오 낭중에게, 자신의 말을 진 소저에게 전하라는 하나의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B]에서 오 부인은 진 소저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였으므로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인 진 소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A]에서 조문화는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라 말하며 '효'라는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청자인 오 낭중이 아닌 진 소저가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이상적인 가치를 내세운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3. ①

**| 정답 풀이 |**

윗글에서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예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 낭중은 조문화의 권력이 두려워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 사리 판별을 하여 진 공의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② 〈보기〉에서 조선 후기의 소설에는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윗글에서 조문화가 진 공에 대한 사사로운 원한을 풀기 위해 진 공을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하고 '엄숭을 사주해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하여' 무고한 진 공을 '운남으로 귀양' 보낸 과정을 통해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적 문제를 다룬 소설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진 소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조문화의 아들과 결혼을 미룬 후, 진 공이 충분히 멀리 이동했으리라 판단되자 남장을 한 후 도망간다. 이를 통해 진 소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EBS 연계 작품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 훈련도감-E 수특·수완정복 시리즈




현대시 편 | 고전시가 편 | 현대산문 편 | 고전산문 편 | 운문·산문 편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 **[훈련도감-E 수특 · 수완정복]**을 통해 연계 작품을 심도 있고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작품과 관련된 전 기출을 수록하여 **훈련도감-E 수특 · 수완정복** 시리즈만으로 연계 출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 숫자로 보는 도서출판 홀수

| | | | |
|---|---|---|---|
| 2014년 | 340종 | 200년↑ | 10년 |
| 도서출판 홀수 설립 연도 | 도서출판 홀수가 발간한 책 종수 | 도서출판 홀수 직원들이 수능 국어를 연구한 시간의 총합 | 끊임없는 개정과 개선으로 홀수 기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여 온 시간 |
| 150만 부 | 10만 건↑ | 1억 원↑ | 5,037명 |
| 도서출판 홀수 교재 누적 판매량 | 홀수 기출 제작 시 참고한 수험생들의 Q&A 개수 | 홀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한 금액 | 홀수의 후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 청소년의 수 |

정가 31,000원
ISBN 979-11-94350-55-2